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 연기론에 이어 불가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17일 오후 광주 도시철도 1호선 구간 중점인 평동역으로 소대방향에서 출발한 열차가 들어오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시내버스 430대 증차 신도심 교통 소외 해소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중단시 광주 대중교통 어떻게 되나

건설재정 수완·첨단 등 노선 신설에 투입 “적자액 엇비슷...건설 추진해야” 목소리도

광주시는 시민 공청회 등을 통해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이 중단 쪽으로 결론난다면 친환경 친서민 대중 교통 수단 체제로 재편한다는 입장이다. 자동차 100만대 생산 도시 조성하고 함께 자동차와 시민이 안전하게 공생할 수 있는 교통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도 2호선 중점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특히 도시철도 2호선에 투입될 예산을 수완·첨단지구 등 신규 택지지구 및 신도심 지역의 시내버스 노선 신설에 집중 투입해 교통 복지를 높여간다는 방침이다.

시는 반면 도시철도 2호선을 건설하는 쪽으로 입장이 정리될 경우엔 시민 중심의 민선 6기 공약사업을 축소하는 한편 신규 사업과 복지, 대중교통 예산 등을 줄이는 등 긴축재정이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건설비 대중교통 확충·'미래 먹거리' 집중 투입=광주시는 매년 800억원대의 건설비가 투입되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포기할 경우 시내버스 430대를 증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신·구도심을 연결

하는 급행버스 60대를 신설하고, 신규 택지와 도심외곽 연계노선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또 시내버스 환승정유장을 조성해 지선·마을버스 연계 환승을 강화하고, 자전거와 시민 보행 여건도 대폭 개선한다는 복안이다.

시내버스 증차 혜택은 당장 수완·첨단지구로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광산구 수완동은 주민등록상 인구가 7만명을 넘어 서며 동 단위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이지만, 대중교통 소외는 심각하다. 인근 첨단지구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실제 수완·첨단 등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인구가 38만여명으로 급증한 광산구의 버스노선은 37개로, 1개 노선을 이용하는 평균 인구만 1만4000여명에 이르는 반면 동구는 인구 10만8000여명에 노선수는 53개로 노선당 인구는 2000여명에 불과하다.

광주시에 이 같은 주민 불편을 해소할 대책을 찾고 있지만 열악한 예산이 발목을 잡고 있다. 시내버스 노선 1개를 운영하는 데 최소 버스 10대가 투입되고 연간 운영

비도 20억원 안팎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난 20년간 노선수만 75개(1993년)에서 95개(2013년)로 늘었을 뿐 버스대수는 되려 965대에서 930대로 줄었다. 노선은 늘고 버스는 줄어든 탓에 시민들이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은 크게 늘어났으며, 시내버스 이용객도 지난 1990년 91만3000명에서 2013년에는 41만9000명으로 반토막이 났다. 시내버스 이용이 불편하다 보니 승용차 등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오는 2025년 도시철도 2호선이 개통되면 대중교통 대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건설 기간만 10년이 넘는 데다 그나마도 제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낮다 보니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시내버스 430대 증차에 따른 준공영제 지원금은 연간 215억원 안팎으로 추정되며, 이는 도시철도 2호선 개통시 운영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조만간 노선조정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또 미래 먹거리인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 건설과 전략산업 유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콘텐트 조성 등에 따른 문화인프라 확충, KTX호남선 개통 대비, 광주 공군항 이전, 광주만의 복지 기준선 마련, 환경문제 해결 등에 관련 예산을 적극

활용한다는 입장이다.

◇건설 찬성론자 “1·2호선 적자액이나 시내버스 증차 비용이나 비슷”=도시철도 2호선을 건설할 경우 1·2호선 운영비로 연간 최소 750억원에서 최대 1050억원의 재정 적자가 발생한다. 이는 시내버스 증차 등에 따른 연간 최소 예상 적자(버스 215억원, 지하철 1호선 500억원) 715억원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게 도시철도 2호선 찬성론자들의 주장이다.

여기에 도심 도로구간 확장 등에 따른 건설 비용, 교통혼잡비용, 교통사고 비용 등 사회적 간접비용만 따져도 무려 1조5464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는 것이다.

특히 도시철도는 친환경 교통수단인데다가 순환선 도입에 따른 구도심과 신도심 간 균형 발전, 건설비 중 국비 1조원 지원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교통 이동시간 단축, 교통약자 배려 수단, 예측 가능한 도착 출발 등 정시성 확보 등 장점도 많다는 입장이다.

광주시가 17일 시 분청 및 사업소 등 과정도 이상 116명 등을 대상으로 개최한 도시철도 2호선 설명회에서도 의견을 낸 공무원 절반 이상이 재검토에 따른 정책의 일관성과 행정의 신뢰성 문제, 지하철 중심의 대중교통 방향 등을 거론하며 사실상 건설 찬성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박진기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백운광장 인근 주상복합 건설 추진

남구의회·지역상인 등 반발 확산

광주의 대표적인 교통 혼잡 지역인 백운광장 인근에 대규모 주상복합 건물 건립이 추진되면서 의회와 상인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광주 남구의회는 17일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는 주상복합 건축 심의를 즉시 중단하고 남구는 합법을 가장한 편법으로 부당하게 모집한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불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회는 “백운광장에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서면 백운고가 철거, 지하도로 개설, 지하철역 건설과 맞물려 심각한 교통대란이 발생하고, 인접한 전통시장의 상권 침해와 푸른길 공원의 가치 훼손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의회는 또 “건축 승인이 이뤄지지 않은데도 건설사가 모델하우스를 열고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위해 조합원을 모집하는 것은 명백한 편법·부당행위”라

며 “이미 모집된 조합원들에게는 사전 정보나 현황 설명도 없어 피해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의회는 “일반적인 기업의 이익 추구에 앞서 공공성과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고려한 건축승인이 이뤄져야 한다”며 “남구가 추진 중인 푸른길 공원과 연계한 문화광장 조성 계획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인근 주민들과 상인들도 교통·상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들어 건립을 반대하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광주지역 한 건설사가 광주 남구 주월동 백운광장 인근 11만㎡ 부지에 지상 28~33층 규모의 주상복합 신축을 위한 건축계획심의 신청을 냈고, 인허가 권한이 있는 광주시는 부지 내 도시계획도로 용도와 교통·상권 영향을 검증하라며 심의를 보류했다. /최권일기자 cki@

전남·부산·제주 연계사업 ‘해양 융복합 소재 산업화’

기재부 예비타당성 심사 통과...6년간 888억원 투입

전남도는 17일 “부산시, 제주도도 함께 초광역 연계협력 사업으로 추진 중인 ‘해양 융합·복합 소재 산업화 사업’이 최종 예비타당성심사에서 통과돼 향후 6년간 888억원이 투입된다”고 밝혔다.

해양 융합·복합 소재는 고열분, 파도, 심해압력, 극저온 등 극한 해양환경의 특수성에 견딜 수 있으며, 해양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새로운 섬유 및 소재다. 조경량·고내구성의 특성으로 인해 선박 구조재 및 추진체, 심해구조물, 로프, 어망, 어구 등에 주로 사용된다.

기획재정부는 ‘해양 융복합소재 산업화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10

개월에 걸쳐 실시한 결과 비용편익분석(B/C)은 0.84, 다기준평가(AHP)는 0.563(0.5 이상 적합)이 나와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인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사업은 부산시를 주축으로 전남과 제주가 참여하는 광역연계형 연구개발사업이다. 연구개발 지원시설 건립과 “그린실 구현 융복합소재 개발”, “하이테크 소형특수신박 융복합 소재 개발”, “차세대 해양 구조물 융복합 소재 개발” 등 3대 분야 4개 핵심기술 개발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유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아시아문화전당, 해외문화교류 본격화

오스트리아·독일·프랑스 문화기관과 협정 체결

내년 개관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콘텐트 구축과 해외교류를 활성화 하기 위한 협력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17일 아시아문화개발원에 따르면 최종단 원장은 최근 세계적인 복합문화기관인 오스트리아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독일 프로이센 문화유산재단, 프랑스 르콩소시움과 현지에서 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오스트리아 아르스 일렉트로니카와 아트&테크놀로지 분야의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 국제적 프로젝트의 공동 운영, 교육연수 등의 교류협력을 하게 된다.

과학기술과 예술의 융합을 연구해 온 ‘미래형 미술관’으로 전 세계가 주목하는 미디어아트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있다. 독일 최대의 문화시설 운영 재단인 프로이센 문화유산재단과 아시아 문화·예술·학문 분야의 인적·물적 교류를 활성화하고 국제적 프로젝트를 공동 운영하기로 했다. 또 프랑스 현대예술센터인 ‘르콩소시움’과는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 분야의 인적·물적 교류를 강화하고 인력 양성, 정보 교환, 출판·교육 등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윤영기기자 penfoot@

하나투어

www.HanaTour.com

문의전화 062)228-1199

주소: 광주 동구 불로동 96-7번지 근무시간: 09:00~20:00(연중무휴)

상당 및 예약: 하나투어 전문 판매점

세정투어여행사 062)464-8000

리지투어 062)431-0102

가림여행사 수원점 062)955-5230

London Stock Exchange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기업

하나투어에서 추천하는 가을테마여행으로 떠나세요!

무안출발 **방콕 전세기 취항**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4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출발일 1/1(목), 1/5(월), 1/9(금), 1/13(화), 1/17(토), 1/21(수), 1/25(일), 1/29(목)

AAPF01-OX1 방콕/파타야 5일

총 상품가격 1,014,800원 ~

항저비품 > 가이드·기사경비 530

호텔: 4성급 호텔 4박

특징: 4성급 호텔 4박, 1일 배풍, 1박: 호텔 뷔페, 호텔 드라마

AAPF01-OX2 방콕/파타야 5일

총 상품가격 1,314,800원 ~

항저비품 > 가이드·기사경비 530

호텔: 4성급 호텔 4박

특징: 4성급 호텔 4박, 1일 배풍, 1박: 호텔 뷔페, 호텔 드라마

AAPF01-OXA 방콕/파타야 5일

총 상품가격 1,464,800원 ~

항저비품 > 가이드·기사경비 포함

호텔: 4성급 호텔 4박

특징: 4성급 호텔 4박, 1일 배풍, 1박: 호텔 뷔페, 호텔 드라마

AAPF01-OX1 방콕/파타야 5일

총 상품가격 1,453,900원 ~

항저비품 > 가이드·기사경비 530

호텔: 4성급 호텔 4박

특징: 4성급 호텔 4박, 1일 배풍, 1박: 호텔 뷔페, 호텔 드라마

지역별 추천 허니문 상품

하와이 레리온

AAWH020-OZC/NEE 오아후 9일

총 상품가격 2,476,100원 ~

항저비품 > 가이드·기사경비 포함

호텔: 10일 - 10일/일/일/일

특징: 4성급 호텔 4박, 1일 배풍, 1박: 호텔 뷔페, 호텔 드라마

AAWH01A-A 울라브 6/7/8일

총 상품가격 3,751,200원 ~

항저비품 > 가이드·기사경비 포함

호텔: 10일 - 10일/일/일/일

특징: 4성급 호텔 4박, 1일 배풍, 1박: 호텔 뷔페, 호텔 드라마

AAWH01B-TG 코사우이 6일

총 상품가격 1,706,800원 ~

항저비품 > 가이드·기사경비 포함

호텔: 10일 - 10일/일/일/일

특징: 4성급 호텔 4박, 1일 배풍, 1박: 호텔 뷔페, 호텔 드라마

AAWH01C-OH 사이판 4/5일

총 상품가격 851,100원 ~

항저비품 > 가이드·기사경비 포함

호텔: 10일 - 10일/일/일/일

특징: 4성급 호텔 4박, 1일 배풍, 1박: 호텔 뷔페, 호텔 드라마

특별한 하나투어 호주/뉴질랜드 여행

1. 매주 금요일 100% 출발 2. 8명 이상부터 인슈어스 동행 (단, 클래식 상품 한정)

3. 대한항공 최다 볼력 확보 4. 국내 유일 호주 & 뉴질랜드 하나투어 지사운영

5. 사전 예약 최대 20인원 할인 제공 (단, 클래식 상품 한정)

PAP20-OZ [사전예약할인] 호주/뉴질랜드 남북섬 8일

총 상품가격 3,186,300원 ~

항저비품 > 가이드·기사경비 580

호텔: 4성급 호텔 4박

특징: 4성급 호텔 4박, 1일 배풍, 1박: 호텔 뷔페, 호텔 드라마

PAP21-KEP [사전예약할인] 호주/뉴질랜드 남북섬 10일

총 상품가격 4,086,300원 ~

항저비품 > 가이드·기사경비 510

호텔: 4성급 호텔 4박

특징: 4성급 호텔 4박, 1일 배풍, 1박: 호텔 뷔페, 호텔 드라마

■ 여행상품 가격표에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전세차임료, 관광진흥기금, 운송숙박·식사요금, 여행자보험, 현지관광보험료 등 반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 포함. 개별여행상품은 미적용. ■ 유류할증료 유류할증료는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며,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가이드에게 가이드비는 상품에 따라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 또는 불포함될 수 있으며 불포함 시 현지에서 별도로 경비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택관광: 현지에서 고객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관광에 참여 가능하며 그에 따른 선택관광비 발생될 수 있습니다. 선택관광 참여여부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한 상황에 여행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습니다. ■ 관광사업자 등록번호 제26004-1993-6 (중로구청) 서울시 중로구 인사동5길 41 하나투어 빌딩 (하나투어) ■ 최소 출발인원 10명 기준/호설 2급호텔 이상 2인 1실/교통편 항공/버스/해리(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고객센터/문의전화 Tel 1577-1233(ARS 안내번호 0번) ■ 당일 보증보험 22억 1천만원 가입